

# 전남 목재문화체험장 인기몰이

### 지난해 8개 시·군에 35만여명 찾아...생활 속 목재문화 확산 '특독' 관광객·예비기능인 등 이용 급증...도, 강진·장성에 추가 조성키로

지난 한 해 전남에 자리한 8곳의 목재문화체험장의 방문객이 35만여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산 목재로 제품을 직접 만들고 싶어하거나, 은퇴 후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넘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7만여명에 불과했던 방문객은 2023년 23만여명 등 매년 앞자리 숫자를 바꾸며 급증하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시·순천시·광양시·구례군·고흥군·화순군·장흥군·영암군 등 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생활 속 목재를

직접 체험하면서 나무의 소중함과 친숙함을 느끼는 곳이다. 목재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목재 소품 제작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목재 전시물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다.

전남도는 자체 사업을 통해 목공예에 관심있는 졸업 예정자, 창업 준비자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목공예 가능한 양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692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같이 목재문화체험장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남도는 2028년까지 강진, 장성에 체험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설계 중이며, 장성군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목재 이용은 탄소중립과 연결된다는 인식 확산으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더 많은 도민이 나무의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더 나아가 목재문화를 향유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산림청에서 목재문화 확산 기여도 등을 평가한 2024년 목재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로 장려상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독특한 매력의 회의 장소 찾습니다

### 전남도, 마이스행사 가능 공간·시설 '유니크베뉴' 이달까지 접수

전남도가 마이스 행사 개최지로서의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 유니크베뉴' 신규 공모를 실시한다. 유니크베뉴(Unique Venue)란 호텔·컨벤션센터 등 일반적 마이스(MICE) 개최 장소 외에 해당 지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장소를 지칭한다.

전남도는 전남을 대표하는 매력과 특색을 가지며, 오래 기억될 독특한 장소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마이스 행사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전남 유니크베뉴'로 ▲목포 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사진> ▲여수 예술마루 ▲나주 3917마중 ▲구례 상산재 등 20개소를 이미 지정했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다. 공모 대상은

마이스 행사 개최가 가능하고 전남 유니크베뉴 정의를 충족하는 장소다. 참여를 바라는 시설은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신청 시설을 대상으로 서류·현장평가 등 전문가 심사를 거쳐 22개소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전남 유니크베뉴는 2년간 자격이 부여되며, 인증 현판 수여, 홍보마케팅 지원, 마이스 인센티브 가산 지원, 관계자 역량 강화, 전문 문가 컨설팅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선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전남은 우수한 역사·문화·관광 자원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마이스 행사의 최적지"라며 "전남 유니크베뉴를 통해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 전남의 마이스 유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꼼치를 살려라” 전남 해역에 종자 1300만 마리 방류

### 도해양수산과학원, 어업인 소득 증대 박차...1200만마리 추가 계획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는 꼼치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과 함께 여수 종화동 해역을 중심으로 종자 1303만 마리를 방류했다. 앞으로 약 1200만 마리 이상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꼼치 어획량은 2020년 약 400t에 달했으나, 지난해부터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105t 수준으로 감소해 한 마리에 1만~2만원선인 꼼치가 5

만~6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꼼치는 한때 못생긴 외모로 인기가 없어 그물에 잡혀 올라와도 바다에 다시 버려지곤 했다. 하지만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해 겨울철 별미로 인식되면서 어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꼼치 자원량이 줄어 겨울철 남해안 대표 어종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8년부터 여수

지역 꼼치 통발 어업인과 협력해 지난해 총 1억 5755만 마리를 방류, 꼼치 자원의 안정적 회복과 지역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중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꼼치 자원 회복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어업인과의 협력 속에서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방류를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꼼치 자원을 되살리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호기심 과학교실 연중 운영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순천·광양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순천·광양의 1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와 연계해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호기심 과학교실)'을 월 1회씩 모두 10차례를 진행한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와 연계 추진 예정인 '호기심 과학교실'은 '출동! 공기구조대', '환경경찰관, 물벼룩 살펴보기', '날아라 환경지킴이(이동차량, 드론)', '관찰담구! 모기보고 튀어!', '알록달록 식품첨가물이야기',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학생들이 직접 실험에 참여하고 결과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연구자들이 지도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순천 2개 학교 50여명이 직접 체험했다. 올해는 지난 1월 순천 이수초등학교에 이어 21일 순천 동명초등학교 어린이가 실생활과 밀접한 과학 실험을 통해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했다. 실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보건과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준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법정감염병 대응 실무자 역량 강화

### 도보건환경연구원, 호흡기세균 검사 등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이 지난 21일까지 3일간 22개 시·군 보건소 감염병 검사요원을 대상으로 법정감염병의 지역사회 발생 적시 대응을 위한 검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 특히 올해는 국내 유행하는 감염병 양상을 고려해 호흡기세균(백일해)검사의 기본 방향 등 새로운 교육 내용을 편성했다.

또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이론 및 실습, 해양환경 내 병원성 비브리오팀리 실습 등 업무에 관한 내용도 심화교육해 검사실 실무자가 복귀 후 빠르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신미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장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검사 능력을 높이고,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단단한 검사실 진단 체계를 구축, 안전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도,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대상

전남도가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대상(보건복지부 표창)을 수상했다.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사회적 존중과 통합 ▲지역사회 돌봄 ▲의사소통과 정보 ▲주거환경 안정성 등 8개 영역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 정책과 성과를 평가하는 상이다.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존중받는 노년,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시책 추진에 힘쓴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 2023년부터 학대 피해 전담 의료기관 3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며 지난해에는 45건의 의료 지원 활동도 펼쳤다. 전국 최초로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에 노인보호 전담 변호사를 각각 위촉, 피해자 37명에게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지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도, 여성친화 소형 전기운반차 800대 지원

### 이모빌리티 육성 44억 투입

전남도가 농촌 여성을 돕고 이모빌리티 산업도 육성하기 위해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 총 800대를 지원한다.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운반차는 농작물·농자재 등의 운반과 작물 재배 또는 관리를 위한 이동 수단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 2020년부터 전남도 자체적으로 꾸준히 보급하고 있다.

1대당 가격은 550만원이다. 보조는 기종별 안전성, 성능 등에 따라 최소 350만원부터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성·고령 농업인 등 대상으로, 신청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기계 안전 교육 이수율과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농업인의 농기계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위하여

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입학문의  
062)605-1114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 과	모집인원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www.kwangshin.ac.kr